

■ 2025년 지혜학교 연속지원 심의 총평

- 심의회의명 : 2025년 지혜학교 연속지원 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1월 23일(금) 14:00 ~ 15:30
- 회의장소 : 외부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윤정, 송하원, 염신규, 오진이, 이유미

‘지혜학교’ 사업은 일반 시민들의 인문적 교양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의 일상을 보다 심도있게 성찰할 수 있게 만드는 사고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인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방방곡곡으로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가적 효과라 할 수 있다.

2025년 지혜학교 연속지원 심의는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평가(정성 50%), 사업 이행현황 및 협조도 평가(정량 50%)를 통해 1차로 상위 30%를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026년 연속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상위 20%를 선발하기 위한 2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인문 가치 확산 노력(50%), 지역 인문자원 연계성(30%), 사업모델 선도성(20%)이라는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사전 서류검토(실적보고서)와 대면 심의회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심의 대상 58개 프로그램 가운데 40개 프로그램을 최종 연속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인문정신 확산이라는 사업의 본질적 목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에 둔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심의위원들은 몇 가지 관점을 합의하여 심의에 임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문적 가치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인문 가치가 매우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인문학(문학, 역사학, 철학 등)에 기반하여 개인과 사회의 여러 가지 국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이 인문학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사고의 전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란 점은 분명하다. 또한 사회적 시의성이나 시대정신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살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이 진행된 해당 지역의 지역성과 장소성이 반영되었는지, 해당 지역의 사회공동체와 연계성이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폈다.

이 사업이 연차가 쌓여가면서 대부분 프로그램의 질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있고 현장의 기관, 시설들도 경험이 축적되어 행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수행 능력의 검증보다는 일상의 생생한 국면들과 밀착되어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의 연계성이나 지역의 장소성이 고려

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폈다. 강의 등 프로그램의 질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단순한 질적 판단을 넘어서 ‘왜 그런 프로그램이 그 장소(지역)에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가 중요한 평가 고려 사항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면서 인문가치를 폭넓게 포함시킨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새로운 시도를 담은 프로그램들도 좀 더 가점 요소로 고려하였다. 다소 관행적인 프로그램이지만 그 질적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경우도 선정 대상이 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해당된다.

연차가 쌓이면서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평균적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해당 지역의 기관·시설들이 기획력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 고리가 존재하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위하여 지역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과 민간시설(독립서점 등) 간의 서로 다른 장단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공공시설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평균적으로 괜찮은 수준을 만들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민간시설들은 그런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지는 곳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업의 발전과 확산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 일동